

# 인질사건의 실태 및 대처방안

김 상 구\*

## < 목 차 >

- I. 서 론
  - II. 인질사건의 이론적 배경
  - III. 인질협상과 강제진압의 방법 및 실태
  - IV. 인질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인질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TV드라마를 통해 접한 항공기 납치사건, 종교적·이념적 동기에 의한 인질사건 등 주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인질 사건을 연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현장에서 취급하는 인질사건의 대부분은 테러조직에 의한 계획되고 조직화된 경우보다는 신용카드 혹은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강도에 의한 인질사건, 절도범 등의 범인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를 위한 인질사건, 미성년자를 이용한 전형적인 유괴사건, 재소자 등 구금된 범인의 탈옥·탈출과정에서 저질러지는 인질사건, 무장탈영 군인에 의한 인질사건, 가족·애인간의 갈등으로 인한 인질사건이 대부분이고 그 유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인질범의 체포보다는 인질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시되

---

\* 노량진경찰서장

고) 범인을 검거했다 하더라도 인질의 생명에 피해를 입는다면 실패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여부는 별개로 과연 최선의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인질사건에 대응한 활동이 대부분 언론매체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sup>2)</sup> 인질사건에 대해 인질범의 검거라는 결과보다는 인질에 대한 안전확보, 검거과정에서의 접근과 대응방안이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2002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테러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대비해 온 결과 경찰특공대의 대테러 능력이 세계 어느 대테러 부대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질사건이 반드시 조직화된 전문 테러집단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아니고 대테러 부대가 항상 모든 종류의 인질사건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일선 경찰서의 순찰요원과 형사들에 의해 대처되고 진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인질협상 전문가의 양성이라든지 인질사건에 대처하는 교육을 이수한 외근 경찰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중동 테러단체가 파병국가 전체에 대해 테러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이상 테러에 대해 안전지대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인질사건과 관련하여 인질사건 현장에서 강제진압 이전에 활용할 수 있

- 
- 1) '02. 7. 18 대전지방법원의 대전 신탄진동 인질 피해자 송00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중요한 직무로 하는 경찰관들로서은 인질범이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잡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가장 먼저 동원 가능한 정예요원과 진압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인질범에 대하여 인질석방 및 투항을 설득하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강제진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질의 고귀한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만일 대처과정이나 진압과정에서 인질범에 의해 인질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 인질범의 생명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인질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2) 1988. 10. 8 탈주범 지강현에 의한 서울시 북가좌동 인질사건, 2001. 3. 17 충주 혜성여고 인질사건, 2001. 8. 1 대전시 신탄진동 그린회관 인질사건 등은 인질사건의 시작부터 진압까지의 과정전체가 언론에 그대로 제공되고 언론에 의해 평가되어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는 인질협상 기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Ⅱ. 인질사건의 이론적 배경

### 1. 인질사건의 개념 및 유형

#### 가. 인질 및 인질범의 개념

인질(hostage)이란 어떤 요구의 충족을 위해 담보로 잡혀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질과 대응되는 개념인 인질범(hodtage taker)이란 다른 사람을 그의 의지에 반해 잡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질사건의 유형과 원인은 특정한 정치목적, 이념, 종교적 신념, 정신질환, 범행과정의 계획된 인질 또는 우발적 동기 등 다양하다.

#### 나. 인질사건의 유형

##### (1) 범죄자에 의한 인질사건

##### (가) 우발적 인질사건

1988. 10. 8 탈주범 지강현에 의한 서울시 북가좌동 인질사건, 2001. 8. 1 대전시 상서동 식당주인 인질살해사건 등과 같이 범인이 도주중 경찰에 발각되어 인질극을 벌인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우발적인 인질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신속한 신고출동체계와 용역경비업체의 활성화로 인해 범죄자가 범행중 또는 도주중 발견되어 도주를 목적으로 한 인질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발적 인질사건에서 인질범은 체포면탈이나 안전한 현장도주를 위해 인질을 잡고 도주에 필요한 차량제공, 경찰병력의 철수 등 일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우발적 인질사건에서 인질범에게 인질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인질에게 위해를 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인질범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정도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상황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유형중 가장 빈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도 절도, 강도 등의 범죄 실행 중에 경찰 등에 발견되어 도주나 항거의 수단으로 인질을 확보하는 우발적 인질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sup>3)</sup>.

#### (나) 계획적 인질사건

계획적 인질사건은 인질강도와 납치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인질사건과 납치사건은 범인이 특정인의 안전을 볼모로 금품, 도주수단 등 특정사항을 요구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질의 현재장소를 아는지의 여부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납치사건은 인질의 현재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납치범이 최후의 순간 인질극을 벌인다면 일반적인 인질사건과 같이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범인이 금품이나 동료석방, 정치적 요구 등을 관철하기 위해 사람을 납치한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질의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생기고 인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보복이나 성적만족, 학대, 조직폭력배간의 세력다툼 등의 경우는 협상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고 인질의 안전이 확보되기 어렵다.

납치사건은 통상 인질사건과 달리 경찰이 납치범과 인질의 현재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협상의 주도권이 납치범에게 있기 때문에 범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인질이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신용카드의 보편화에 따라 강도가 행인의 금품을 노리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 범죄가 빈번해지는 경향과 관련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해 인질을 잡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되어 인질극으로 발전, 대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계획적인 인질사건에 대비한 경찰 수사방안의 연구가 시급할 것이다.

3) Davis A, Soskis, *Management Quarterly*, U.S Department of justice, FBI, 1996, vol6, p.2.

## (2) 정신질환자 등 비이성적 원인에 의한 인질사건

인질사건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에 의한 인질사건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도 가족, 직장, 건강 기타 자기와 관계된 사회환경에 생긴 갑작스런 변화를 극복하지 못해 자살 또는 타인 또는 가족을 인질로 잡고 인질극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려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정신이상이나 약물 중독에 의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등의 협조를 받아 일단 인질범의 심리적 불안요소를 파악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될 수 있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부문에서의 불안으로 30대 직장인 정리해고라든지 비이성적 원인에 의한 인질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다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설득 등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이 연구되고 협상가가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3) 교도소 등 수감자에 의한 인질사건

교도관이 인질이 되는 경우 인질범들은 오랫동안 억눌린 분노와 감정을 극단적으로 잔인한 역전을 통해 분출하게 되어 인질의 생명이 심하게 위협받는다.

일단 1인 또는 수인의 주동자가 다수의 죄수들을 장악하면 그때부터 인질범의 행동은 신속해지고 조직화되면서 경찰의 진압에 대비해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고 '적들 대 우리' 증후군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또한 이들 죄수들은 협상대표로 과격파를 선정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신들의 석방과 자유를 요구한다. 이런 상황을 진압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고립과 합리적인 설득이다. 인질범의 심리상태를 염두에 두고 교도소의 지형과 인질의 안전을 주의깊게 고려하면서 특공대를 투입하여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간이 지체되면 경찰이 불리해지고 교도소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접근이 제약되며, 인질범들이 진압에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 (4) 종교적 광신자에 의한 인질사건

종교적 광신자들은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접근을 '깨끗하지 못한 것', 또는 '본

질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종교적 광신자에 의한 인질사건에서 광신적 추종자는 자동인형에 불과하고 지도자의 명령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해야 한다. 여기서도 '적들 대 우리' 증후군이 형성된다.

종교적 인질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입각한 인질범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들의 주장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지시키는 협상 방법이 효과적이다. 관련기관에서 이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경우 인질의 위협이나 폭력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

#### (5) 테러범에 의한 인질사건

인질납치는 남미의 혁명분자들이 1960년대 초에 주로 사용했던 방법으로 수감된 동료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인질을 이용하여 정치적 선전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이다.

인질납치는 위험부담이 아주 적으면서 정치적 선전효과는 상대적으로 무척 높아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테러의 시기라고 할 정도로 테러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1976년부터 1986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약 2,500여 건의 인질납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사건은 10% 정도인 230여 건에 달한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테러가 주춤했으나 2001. 9 오사마 빈 라덴의 지시로 추정되는 뉴욕 무역센터 비행기 충돌사건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하고 아프카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공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테러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영화나 TV에서 보아온 중동 테러분자들에 의한 항공기 납치, 빌딩점거, 대사관 점거 등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또한 테러범들은 잘 훈련되고 고도의 능력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동지역 출신 테러범의 특징을 연구한 FBI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테러범들의 지적·전략적 능력은 선입견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sup>4)</sup>.

4) Thomas Strenz, *A terrorist Psychological profile : Past and Present*, FBI Law Enforcement

테러범들은 조직이나 신념에 대한 높은 충성심, 인질의 탈출기회 방지와 무력 공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위협성이 높지만 그들도 고립된 상황에서는 시간이 경과할 수록 충성심이 급격히 약화되어 협상요원들의 대화에 응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한다.

테러범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의 요구 또는 주장을 존중하는 듯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테러의 특징으로는 계획성, 동기, 요구, 자해, 규모 등을 들 수 있다.

① 계획성: 수개월, 수년간에 걸쳐 테러대상을 탐색하고 테러방법을 연구한 뒤 실행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sup>5)</sup>

② 동기: 정치적 이념, 종교, 민족, 집단적 이해 관계나 원한 등이 동기가 되며, 인질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런 동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얻고 자신들의 목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요구: 테러범에 의한 인질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일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질의 희생가능성이 다른 형태의 인질사건에 비해 매우 높다.

④ 자해: 대부분의 테러범들은 순교자가 되기 위해 자살을 불사하는 경우가 많다.

⑤ 규모: 1명의 인질범에 의한 경우보다는 다수의 인질범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인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 2. 인질과 인질범의 심리

### 가. 인질의 심리

#### (1) 불안공포

인질사건의 경우 인질이 실제로 체험하는 공포는 일상의 어떤 공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하기 어려운 심리반응을 보인다<sup>6)</sup>. 인질은 납치 당할 때,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FBI, 1987.

5) 뉴욕 무역센터 비행기 충돌사건의 경우 비행교육을 비롯해 오랜 시간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출작전이 전개될 조짐이 보일 때, 또는 석방 결정이 내려질 때에 불안·공포가 고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의 지강현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이것이 내 인생을 마감하는 최후의 순간이구나.'하는 불길한 예감에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마치 졸도할 것 같은 공포를 체험했다고 한다.

## (2) 동일시

대부분의 인질들은 피납 당시에는 인질범을 증오하고 공격심과 적개심이 생기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적으로 진정되어 인질범과 인질이 일체감을 느끼고 경찰의 공격목표가 되어 있는 인질범들이 자기들과 같은 성격을 지닌 또 하나의 인질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인질범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인질범이 경찰의 포위에 갖혀 장소이동을 할 수 없고 인질이 인질범에게 느끼는 위협을 인질범이 경찰에게서 느낀다는 이해에서 기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질들은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찰이 없다면 오히려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 (3) 감정의 전이

인질상황이 계속되면서 인질과 인질범 사이에 상호의존감과 밀착감이 감응되는 정신적 현상을 감정의 전이라 한다 대부분의 인질들은 자신을 관대하게 다룬 범인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신을 동물처럼 취급한 범인에게는 증오심을 나타내어 자신을 관대하게 다룬 범인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스톡홀름 증후군<sup>7)</sup>, 웨이드 잭 증후군<sup>8)</sup>, 페트리샤 허

6) 이하영, 인질의 정신병리적 고찰, 1989, 135면.

7) 1973. 8 스웨덴 스톡홀름의 은행에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2명의 강도가 131시간동안 4명의 인질을 잡고 인질극을 벌였는데 협상과정에서 한 여성인질은 수웨덴 수상과의 전화에서 경찰의 공격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인질범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가졌다.

8) 1967년 미국 펜실베니아 웨이드 잭에서 발생한 유괴사건에서 경찰이 유괴범을 발견했을 때 유괴범과 상당한 거리에 있던 인질이 오히려 경찰의 구출을 거부하고 인질범에게 달려가는



스트 사건<sup>9)</sup> 등이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의 초기 생성과정에서 인질들은 적대감과 공포로 인한 정신적인 억압을 맞보면서 심리적인 도피처를 구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의 인질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첫 단계는 긍정적인 유대관계가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질과 인질범과는 상호 운명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공권력이 인질범의 요구만 들어준다면 인질의 생사는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인질범을 진압하는 경찰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생기고<sup>10)</sup> 인질범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인질범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어쩔 수 없다는 식의)을 호소하고 인질들은 억압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세뇌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인질범이 오히려 인질과의 대화과정에서 인질들과 동화되는 현상인 “리마 증후군(Lima Syndrome)<sup>11)</sup>”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 북가좌동 탈주범 사건에서 인질이었던 고00양은 “아무리 흉악범이지만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다.”, “탈주범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다.”, “상황이 끝난 후 숨진 탈주범들의 뉘이라도 위로하고 싶다.” 고 하는 감정전이 현상이 있었으며, 대전 그린회관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한 인질 송00이 인질과 함께 이동하면서 막아선 경찰관에게 비키라고 요구하고 범인이 아이들을 풀어주겠다고 하자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작은 아이를 업고 큰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와 경찰작전에 방해를 초래하였다<sup>12)</sup>.

---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건 후, FBI의 조사결과 피해자는 유괴범이 아무 잘못도 없고 피해도 없으니 구태여 체포할 까닭이 있느냐고 되묻는 감정전이의 심리 반응을 보였다.

- 9) 1974년 미국의 상속녀였던 Patricia Hearst 는 인질사건중 인질범중에서 애인을 만들었고 경찰이 인질범을 체포하려 하자 자신의 몸으로 경찰의 발포를 막는 등 인질범들을 옹호하면서 범인들의 인질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 10) 구광모, 인질협상에 있어서 인질범과 인질과의 관계, 1988, 161면
- 11) 페루 리마의 일본대사관 사건에서 인질범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신들보다 오히려 상류층인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인질범 자신을 인질과 동일시하게 되고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스톡홀름 증후군과 대비하여 “리마 증후군” 이라고 한다 (경찰외사론, 2003. 241면).
- 12)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 국가측 소송수행자가 피해자 과실에 의한 배상금 상계사유로 제출하였다.

## 나. 인질범의 심리

인질범들은 범죄경력이나 평소의 생활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반사회적 인격 또는 정신병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인질범들은 인격 자체가 사회화되지 못하고 사회의 갈등을 일으켜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정부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심리상태는 일종의 이상인격으로서 지나치게 어느 한 쪽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그 성격으로 인해 자신들이 괴로움을 받는 인격의 소유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남을 존경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

정신분열의 경우는 사고와 감정·행동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회와의 유대가 단절되어 부적응을 이루며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망상(환시·착각·환청)에 의해 지배된다. 망상은 궁극적으로 현실과 일치될 수 없어 이로 인해 사회와의 마찰을 동반하게 되고 결국 실력을 행사하며 그 방법이 범죄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정신분열자들의 기분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협상가는 자극적인 언동을 피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인질사건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데 대하여 인질범에 대한 profiling이라든지 인질극에 이르게 된 배경 등 모든 조건이 정형화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협상가 또는 인질사건에 대처하게 되는 지휘관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차화 협상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Ⅲ. 인질협상과 강제진압의 방법 및 실태

### 1. 인질협상

13) 이하영, 북가좌동 인질사건에서 나타난 납치범과 인질의 심리, 1990, 179면.

### 가. 인질협상의 개념과 목적

인질협상(Hostage Negotiation)은 인질 기타 관련자의 생명·재산이 급박하고 명백한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 기타 법 집행기관이 이런 위기상황을 초래한 자(인질범)와 대화 등의 협상을 통해 인질 기타 관련자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을 해결하려는 일련의 의도적 과정을 말한다.

실무 현장에서 인질사건에 임하는 대응방법은 다양해서 협상기법만이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질사건은 사건마다 인질범의 성격은 물론 인질·범죄동기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하든 사건만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실패할 경우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sup>14)</sup>.

그러나 이런 임기응변적 대응은 위기 상황적 특징이 강한 인질사건에서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인질사건에서 인질과 인질범의 초기 심리상태는 매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사소한 외부의 상황변화에도 과잉 반응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숙련된 경찰관이 아니면 자칫 덩달아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sup>15)</sup> 결과적으로 사건해결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질사건에서 지휘관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할 것이다.

납치하는 처음의 동기가 무엇이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보다 적은 목표를 수용하려는 것은 인질범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런 점을 최대한 경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질범과 협상을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인질협상은 인질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인질범은 인질을 방패삼아 경찰의 진압을 저지하면서 해결 가

14) 대전 그린회관 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한 직후 언론은 최초 형사들이 몸을 다쳐가면서 범인을 검거한 사실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인질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태도를 바꿔 비난 기사를 내보내는 결과론적인 자세를 취했다.

15) 대전 그린회관 사건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은 '시간을 벌며 인질범의 심경변화를 유도하지 않고 심지어 배짱있으면 찢러보라고 범인을 야유하기까지 하였으며 좀더 인내를 갖고 범인의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적당한 기회를 보아 신속하고 결정적인 검거작전을 펼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과의 대화과정이 억압적이었다.'는 과실을 주장하였다.

능한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 탈출보장, 기타 정책의 변경 등을 요구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항복하면 사형 등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극렬히 저항하기도 한다.

이런 인질협상에서 활용되는 인질과 인질범의 감정전이현상, 피암시적 기법<sup>16)</sup>과 면담유출 기법<sup>17)</sup> 등을 포함한 심리변화활용기법·대화기법 등 구체적인 인질협상기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인질협상과정에서 인질협상요원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인질범의 기대수준을 낮추고 그들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협상기법을 익히고 실제 활용해야 한다.

인질협상요원은 지연전술을 사용, 시간을 벌고 주고받는(give and take)거래를 통해 인질범이 얻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전술부대는 인질범이 더 강렬하게 저항할만한 직접적인 위협전술은 배제하지만 인질범의 눈에 띄는 봉쇄전술을 통해 경찰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무력진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인질범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자신이 통제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질협상요원이 인질범과 신뢰·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질협상요원은 인질범이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평화적으로 투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인질범은 투항해서 선처를 바랄지 아니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할 때 부상을 당하거나 사살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하는데 대부분 인질사건은 이런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물론 이런 과정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며 인질협상요원은 인내를 갖고 효과적인 협상기법을 구사하여 인질범과 대화를 나누고 분쟁을 억제하며 사건을 평

16) 인질협상과정에서 인질범의 의식적인 저항으로 인해 효과적인 협상진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암시보다는 간접암시를 통해 인질범이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의 변형상태 최면, 몽유상태로 인질범을 유도하여 대상을 간접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다. 충주 혜성여고 사건에서 인질범을 인질들과 떨어지게 하고 안심시켜 고개를 숙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여 작전부대 투입의 시간을 벌고(불과 3초였지만 중요하다) 인질의 안전을 확보한 성공사례임.

17) 협상가가 인질범과의 자연스런 대화과정을 통해 인질범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협상이나 강제진압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대화기법.

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인질협상요원의 말과 전술적 조치들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인질협상요원과 전술부대장, 그리고 언론발표를 책임지는 공보담당자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들이 통일된 관점에서 움직여줘야 효과적인 인질협상을 위해 인질협상요원들이 인질범과 형성해온 친화관계를 해치지 않게 된다. 특히 최근의 인질범들은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그들의 행동을 선전·호소하고 경찰이나 정부의 대처능력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 또한 그 특성상 오히려 그러한 인질범의 계획에 말려드는 사례<sup>18)</sup>가 많고 언론의 취재경쟁에 의해 진압부대의 작전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질상황에서의 언론대응기법 등에 관해 충분히 연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취재경쟁으로 경찰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인질과 기타 시민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과적인 인질협상과 작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 흔히 경찰관들은 사건현장에서 인질범과 대화시도가 안되면 인질범이 사건을 장악한 것으로 알고 좌절하여 무력진압 등의 조급한 공세적 접근방법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인질협상요원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인질협상요원의 조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무력진압에 앞서 인명손실 방지를 위해 인질에 대한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현장지휘관은 전술작전이란 개념이 인질협상이 실패한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질상황에서 전술작전에 대한 강박관념이 오히려 인명손실의 위험성을 극도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상과 전술의 조화를 통한 균형적 접근방법(Balanced Approach)을 활용할 수 있어야

18) '96. 12. 17 페루주재 일본대사관 인질사건에서 인질범들은 NHK등의 언론사를 이용하여 인질의 숫자를 불러 보도하게하는등 언론을 이용하였고 일부 기자들은 경찰봉쇄망을 뚫고 인질범과 취재하는 등 '언론의 인질범의 친구'라는 평을 받았으며 정부의 협상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우려를 만든 사례가 있다.

한다.

인질사건 현장에서 협상조정관(Negotiation Coordinator)은 전술부대장과 함께 현장지휘관의 참모로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인질협상요원은 전술부대와 인질범 사이에 위치하여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질범의 언동을 비교·분석하고 제공할 물건이나 석방자 등을 조정하며 인질범과 인질에게 지급할 물품을 맞추고 석방된 인질을 수용·면접하고 투항자를 다루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상호 밀접한 조정을 해야 한다.

협상요원의 선발, 교육프로그램, 장비활용 등의 사전 준비활동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론적인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특공대 등 전술부대와 함께 실제 상황과 같은 합동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사태를 조기 진정시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인질협상요원들이 인질협상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인질협상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는 물론 상황종료 후의 스트레스 해소 대책도 심리학자, 의사 등 전문 상담요원의 도움을 받아 연구·수립·시행해야 한다.

최근 교역의 확대와 산업연수생 등 합법·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미국의 대 아랍정책 등에 불만을 품은 알 카에다 등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외국인 인질·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 인질협상요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는 물론 아랍어 등 특수국가의 언어능력을 가진 통역요원들을 사전에 확보·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나. 인질협상의 원칙

협상자는 인질범과 접촉시 범인에게 도움을 주는 매개자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또한 비위협적이고 긍정적인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원하는게 뭐야?'하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을 묻지 말고 대신 '어떻게 도와줄까?'하는 식으로 묻는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따른 인질협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협상자와 인질범과의 대화통로는 가급적 단일화해야 한다. 협상가를 믿지

못하고 여러사람이 협상에 임하면 인질범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고, 인질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사태파악에 혼선을 줄 수 있다.

② 협상자는 대화시 언어, 어조, 어투 등을 신중히 선택하고 미리 인질범의 교육수준과 생활습관에 맞추어 인질범의 관점에서 실험해 본다.

③ 범인들을 안심시켜 인질범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협상자와 범인들간에 어느정도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협상에 유리하다.

④ 협상자는 인질범보다 부드럽고 천천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거친 표현과 욕설을 내뱉는 인질범에게 시종일관 격식을 갖춘 존댓말로 대응하는 것은 고려해보아야 한다. 인질범이 협상자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투 역시 조절하여야 한다.

⑤ 인질범의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언행을 금해야 한다. 인질범의 감정을 자극하여 인질에 대한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⑥ 인질범과의 대화에서 범인의 감정상태, 진실성, 합리성에 대한 실마리를 주의깊게 찾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 전술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다.

⑦ 인질범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도와 암시를 포착하여 협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⑧ 최종시한을 피한다.

⑨ 협상자의 제안에는 시한을 정하고 인질범의 시한에는 자연스럽게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넘기도록 한다.

⑩ 교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의 제공에는 반드시 대가를 고려한다.

⑪ 인질범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어서는 안되며 인질범에게 무엇이든지 자진해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⑫ 협상시한을 끌면서 전술부대의 공격타이밍을 제공한다.

#### 다. 인질협상시 유의사항

협상가가 인질과의 대화과정 도중에 자칫 인질범의 의도에 휘말리거나 인질범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과도한 약속 등을 하는 등 실수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협상가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 ① 인질범의 약속에 의지하지 말 것
- ② 전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흘리지 말 것
- ③ 인질범이 협상가와만 대화하도록 할 것
- ④ 증표등을 제시하며 협상가로서의 권한을 명확히 주지시킬 것
- ⑤ 인질이 협상가의 계획을 알 수 없도록 할 것. 인질의 심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질과 인질범이 긴밀한 협조관계일 수 있음
- ⑥ 인질과 인질범의 안전에 관한 관심을 표명할 것
- ⑦ 노여움, 분노 등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억제하고 인질범을 몰아붙이지 말 것
- ⑧ 인질범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것
- ⑨ 교통수단, 인질교환 등은 절대 제안하지 말 것

경찰실무자료집상<sup>19)</sup>의 인질범 협상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사건현장을 미리 차단하여 보도진의 접근을 방지 → 사건현장의 공개는 범인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 차단, 협상 실패우려 있음
- ② 범인들과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통신방법 마련 → 범인들은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인 바, 협상이 성공하려면 인질범과 협상자 사이에 원만한 의사소통과 감정의 전이가 이루어져야 함
- ③ 범인에 대한 신속 정확한 신상파악 → 성장과정 · 가정환경 · 성격형성 · 생활태도 · 취미 · 특기 등 일체의 생활기록을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활용
- ④ 범인들을 안심시켜 자신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믿음부여 → 경찰과 범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협상에 유리
- ⑤ 인질범의 불안 · 초조 · 긴장 · 흥분을 이완 → 감정이 고양되어 이성을 잃고 인질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유의
- ⑥ 인질범이 사건초기에 인질을 살해하지 않도록 유도 → 궁지에 빠지지 않는 한 차후에 인질을 살해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큼
- ⑦ 인질범과의 대화통로를 단일화 → 지나치게 많은 사람의 협상은 일관성을 잃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
- ⑧ 가능한 한 인질범과 협상자가 곧바로 시선과 용모를 볼 수 있도록 유지→

19) 사이버경찰청 실무자료집(<http://admin.police.go.kr/officer/data>)



대화가 중단되는 일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⑨ 인질범의 여자친구나 부모를 인질협상에 참여시키는 것을 신중고려 → 오히려 인질범을 진정시키기보다 감정적인 자극을 하게 되므로 이들을 현장에서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함

⑩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감정적인 자극을 주지 않도록 → 특히 「절대, 결코, 마지막」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나 「인질, 테러, 범인」 등의 직설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순화하여 사용할 것

⑪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열린 질문을 가급적 이용 → 긴 대화를 통해 많은 배경지식을 얻으며, 심문식의 질문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⑫ 요구사항의 처리는 상호타협식임을 인식시킬 것 → 자신이 일정한 사항을 포기하지 않고는 협상자측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인질범의 작은 조건이라도 무시하지 않도록 유의

## 2. 강제진압

### 가. 강제진압의 결정

인질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상에 의한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경찰특공대 등 전술부대를 동원한 강제진압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반드시 협상이후에 강제진압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상시작 이전에 또는 협상과 병행하여 강제진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경우도 많다.

특히 테러와 관련된 인질사건은 세계 각국에서 공히 강경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인질사건의 기본정책을 안전한 인질구출, 절대불양보에 두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테러의 증가요인이 되며 불양보시 오히려 테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인질사건의 강제진압의 경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고 특공대 투입까지 기다리기 전에 강제진압에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경우도 많을 것이다. 특히 총기의 제한적 휴대를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테러업무를 주로 하는 경찰특공대보다는 일선 순찰 외근경찰관<sup>20)</sup>이나 형사들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현장지휘관은 냉철한 판단으로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강제진압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충주 혜성여고 인질사건의 경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범인을 검거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으나 대전 그린회관 사건의 경우 적절치 못한 진압방법의 사용으로 인질범 제압에 실패하여 인질이 희생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실패사례로 들 수 있다.

#### 나. 특공대 투입과 작전회의의 중요성

협상이 무위로 끝나거나 협상도중 강제진압에 적합한 타이밍을 얻었을 경우 현장지휘관은 강제진압에 의한 인질구출과 인질범 검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진압은 인질을 살해할 우려가 급박하거나 협상보다는 공격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극적인 강제진압 방법을 즉각 사용할 수 있다.

강제진압 방법은 일단 작전이라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협상가가 작전부대의 작전수행에 필요한 타이밍을 찾고 지연전술을 사용하는 현장지휘관과 투입된 특공대는 사전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작전회의를 거쳐 도상 또는 가능하다면 실제 예행연습을 거치고 적절한 진압방법과 타이밍을 찾는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모든 지원팀에게 인질범에게 노출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전파를 통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 2002. 4. 30 경북 칠곡에서 인질범이 짝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동료와 결혼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기총을 들고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오히려 권총 2정을 빼앗기고 경찰관까지 인질로 삼아 5시간 가량 인질극을 벌이다가 자살한 사건은 일선 순찰 외근경찰관의 초동조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준다.

### 3. 사례 연구 및 교훈

#### 가. 국내사례

##### (1) 1988. 10. 8 서울 북가좌동 미결수 탈출 인질사건

###### (가) 사건개요

1988. 10. 8 강도, 살인등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미결수 25명이 대전과 공주교도소로 이감되던중 수감과 포승을 풀고 호송하던 교도관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권총과 실탄을 빼앗고 버스를 탈취 도주 10. 9부터 10. 15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6가정에 침입하여 은신처와 금품을 요구하다가 15일밤 마지막으로 북가좌동 고00의 집에 침입하여 가족 6명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대치하다가 인질범 4명 중 3명은 자살하고 1명이 검거되었다.

###### (나) 교훈

범인들은 자살하고 다행히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성공사례로 볼 수 있으나, 사건 전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① 인질사건 현장을 경찰이 미리 통제하지 못하고 보도진에게 공개되어 범인들에게 도피 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를 차단하게 되어 범인들이 극한 의식을 느끼게 되고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② 범인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profiling 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의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다.

③ 경찰과 범인들 간의 관계와 신뢰발전을 얻지 못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질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④ 의사소통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요구조건을 적당히 들어주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함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 (2) 2001. 3. 17 충주 혜성여고 인질사건

###### (가) 사건개요

인질범 지○○(27세)은 자신에게 500만원을 사기한 조○○(41세)를 찾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채권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 것을 마음먹고 2001. 3. 17 10:10 충주 혜성여고 교실에서 교사를 포함 5명의 인질을 잡고 조○○을 데려오라며 인질극을 벌이다가 6시간 여만에 스텐탄<sup>21)</sup>을 투척하고 진입한 경찰특공대에 의해 검거되고 인질은 전원 무사히 구출되었다.

(나) 교 훈

① 경찰서장이 현장에 임장하여 경찰특공대를 요청하고 작전지휘권을 일원화하여 현장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

② 범인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profiling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범인의 가족(父)을 통해 설득을 시도할 수 있었고<sup>22)</sup>, 범인의 성향을 파악 효과적인 대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다.

③ 인질범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시간을 벌고 작전부대가 예행연습을 할 수 있었고 피압시 기범으로 범인의 주의를 분산시켜 작전시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작전부대 투입의 적절한 타이밍을 만들어냈다.

(3) 2001. 10. 1 대전 신탄진 그린회관 인질사건

(가) 사건개요

범인 안○○은 특수강도 등 전과 4범으로 '96/1/6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4년간 직업 없이 그린회관에서 근무하던 오○○와 동거해 오다가 잦은 구타로 '01.7.5 오○○이 가출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오○○의 소재를 알아내고 생활비를 강취하기 위해 2001. 8. 1 06:30 대전시 신탄진동 그린회관에 침입하여 주인 송○○과 두 딸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거되고 인질이었던 송○○은 범인의 칼에 찔려 사망한 것이다.

21) 폭발시 섬광과 폭음으로 폭발에 노출된 사람은 6~8초간 모든 감각이 정지되어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각국의 대테러 부대에서 인질사건 진압에 가장 중요한 장비로 취급된다.

22) 범인의父가 오히려 범인을 자극하여 중지시켰으나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나) 교 훈

① 지휘관이 현장에 입장하지 않아 전체적인 상황판단에 의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특공대 요청이라든지 가용경력의 동원 등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② 협상요원이나 인질사건에 대처할 능력을 가진 요원이 없어 작전계획 수립 자체가 영성하고 인질을 보호하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sup>23)</sup>가 없었다.

③ 탈출한 종업원 정○○에 의하면 범인의 동거녀가 피해자 송00의 업소에서 일했었다고 했음에도 범인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등 profilig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인의 성격이나 전력을 알지 못해 적절한 협상기법을 사용하지 못했다.

④ 검거시에도 인질을 보호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인질범 검거에만 치우쳐 인질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질범을 공격하고 검거하면서 인질에 대해서도 동시에 보호조를 운영했다라면(밀쳐내기만이라도) 인질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 2003. 6. 4 목포 상동 여학생(13세) 인질강도 사건

(가) 사건개요

2003. 5. 30 강도상해로 4년간 복역후 출소한 범인 강00이 6.4 20:40경 홈친 차량을 이용, 13세의 여학생을 납치하고 여학생의 휴대폰으로 여학생의 아버지에게 7,000만원을 요구하며 인질강도극을 벌이던중 경찰은 범인을 유인하여 검거하기 위해 가짜 돈가방을 만들어 약속장소에서 포위하고 있었으나 흥분한 아버지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범인의 차량을 추돌하고 범인을 구타하자 범인이 과도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 와중에 여학생은 탈출하여 구출되고 범인이 도주하여 심야 추격전 끝에 검거한 사건임

(나) 교 훈

① 야간에 상황이 전개되어 이동통신 회사와의 협조가 늦어져 범인의 위치에

23) 예컨대 스팀탄, 전자총 등.

대한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었다.

② 범인 도주로 상의 인접서와 유기적 공조가 부족하여 추격전이 길어져 또 다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고 자칫 범인을 놓칠 우려마저 있었다.

③ 피해자 아버지의 흥분된 상태에서 돌발상황<sup>24)</sup>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④ 범인이 지능적으로 장소를 옮기며 통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아버지와 범인과의 통화를 감청할 장비가 없어 범인 추적과 작전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 나. 외국사례

#### (1) 1972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 인질사건

##### (가) 사건개요

1972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20회 올림픽에서 아랍 테러단체 「검은 9월단」 7명의 테러범이 이스라엘 선수 숙소를 점거하여 2명을 사살하고 9명을 인질로 잡은 뒤 이스라엘 형무소에 수감중인 236명의 아랍인 석방, 테러범들과 인질의 안전한 탈출을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이다가 제공된 버스로 공항으로 이동, 비행기로 옮겨 타려는 순간 교전이 시작되어 한 시간만에 인질은 전원 사망하고 특공대원 1명 사망, 테러범 5명 사살, 2명 투항이라는 비극적으로 끝난 사건이었다.

##### (나) 교훈

① 이스라엘은 테러에 대해 보복전략을 유지하고 테러범과의 협상을 일체 거부하여 서독정부로 하여금 협상의 여지를 좁게 만들었고 아랍권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려 독일정부의 입장에 융통성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

② 테러범의 리더만 제거하면 다른 테러범들이 투항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

24) 2003. 6. 4 인천 연수동 유괴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두려워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범인과의 통화내용을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독단으로 돈가방을 범인에게 넘겨주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하고 수사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으나 리더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저격수들은 야간사격에 자신감이 없었다.

③ 무력진압은 잘 훈련된 특수부대가 있어야 하고 최소의 희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고, 무모한 공격으로 인질의 희생이 따르면 안된다는 교훈을 준다.

## (2) 1996 페루 일본대사관 점거사건

### (가) 사건개요

'96. 12. 17 20:30경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일본 국왕 히로이토 탄생기념 리셉션중이던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페루의 좌익 테러 단체인 'MRTA' 소속 18명이 폭탄을 터뜨리며 난입하여 각국 대사, 페루정부 요인 등 인질 395명을 인질로 잡고 수감중인 게릴라 440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4개월간의 인질극을 벌이다가 '97 4. 22 페루 특공대 140여명이 공격용 땅굴을 통해 진입하여 인질범을 전원사살하고 인질 72명중 71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성공적으로 끝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훈련된 테러단체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언론플레이와 고도의 작전을 구사한 사건이었다.

### (나) 교훈

① 페루정부는 불타협·불양보 정책을 근간으로 협상전략을 고도의 정보 심리전 차원에서 활용하여 강·온 양면협상을 통해 조기타결의 카드로 활용했다.

② 대형스피커로 군가를 방송하는 소음으로 터널 굴착을 은폐하면서 후지모리 대통령은 화해분위기 조성 및 투옥중인 인질범 석방 암시로 무력진압 의도를 기망하면서 동시에 지상과 지하작전을 계속 추진하였다.

③ 감청기, 적외선 탐지기, 지뢰탐지 자기감응 장비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정보 파악에 효율을 높이고 성공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④ 정부의 협상전략을 무산시킬 수 있는 무리한 취재<sup>25)</sup>와 테러범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영하여 “언론은 테러범들의 가장 절친한 친구”라는 비난을 받았고

25) 일본 아사이 TV 기자 2명이 경찰 봉쇄망을 뚫고 테러범을 취재.

언론이 테러리즘 관련 사건의 보도를 할 경우 언론사 나름의 보도규칙을 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26)</sup>.

(3) 2000. 5. 31. 룩셈부르크 보육원 인질사건

(가) 사건개요

2000. 5. 31 룩셈부르크의 한 보육원에서 가라테 유단자이며 가정폭력과 정신병 내력이 있었던 범인이 수류탄을 들고 46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사를 인질로 잡고 리비아로 갈 수 있도록 15인승 항공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다가 정신과 담당의사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 경찰이 TV 인터뷰를 가장하고 TV카메라로 위장한 총을 휴대한 저격병을 기차로 위장 근거리에서 발사하여 중상을 입고 검거됨

(나) 교훈

- ① 사건직후 경찰특수부대 130여명이 투입되어 보육원 반경 500m지역을 봉쇄하여 피험방지에 성공하고 언론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 ② 수류탄을 소지한 범인에 대해 저격을 결정하여 대형 인명살상 방지
- ③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인에 대한 저격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우려가 높다. 범인 저격은 무장탈영병이라든지 총기를 휴대하여 인명살상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sup>27)</sup>.

---

26) ① 테러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보도에 임해야 한다. ② 작전부대의 훈련기록 및 요원에 대한 신분노출 금지 ③ 경찰의 대응에 관련된 정보유출 방지 ④ 추측을 배제하고 근거없는 소문의 확산을 방지하며 사건진행에 대한 정확한 사실보도 수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27) 1993.5월 프랑스 파리 외곽의 보육원에서 다이어마이트를 몸에 두른 인질범이 21명의 어린이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36시간 뒤에 잠이 들었는데 - 경찰은 정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제공된 음식물에 수면제를 넣은 것으로 추정 - 범인이 잠든 후 경찰이 근거리에서 사살하였고 범인의 친척들이 살인이라며 제소하는데 대해 치안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언론은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하였다.



## (4) 2002. 10. 23 체첸반군에 의한 모스크바 돔 쿨트르 극장 인질사건

## (가) 사건개요

2002. 10. 23 공연중이던 모스크바 돔 쿨트르 극장에 무장한 체첸반군 40명이 관객 등 912명을 인질로 잡고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이다가 3일만에 마취가스를 살포하고 진입한 특수부대 '오몬'에 의해 인질범과 인질 등 150여명이 사망하고 종료된 사건이다.

## (나) 교훈

①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인 인질들에 대해 마취가스가 미칠 영향과 극장 안에 적절한 양의 가스농도를 계산하지 못해 많은 수의 인질이 사망하는 결과를 빚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았다.

② 당시 대비중이던 의료진은 마취가스의 종류를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로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해독제를 준비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늘었다.

③ 음식물에 수면제를 위장투여 하는 방법은 성공사례<sup>28)</sup>가 있고 고려할 만한 방법이나 테러범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화학작용제의 개발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질살해나 화학작용제에 의한 인질의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IV. 인질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 1. 인질사건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인질협상 전문요원 양성

지휘관, 참모는 물론 형사, 112순찰직원, 치안상황실 직원 등 현장 요원들이 인질협상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인질상황이 자주 발생하면 상황처리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의 대응능력을 습득해 갈 수 있지만 사실상 일선 외근요원들이 인질사건과 맞부딪칠 기회는 많지 않다.

28) 스톡홀름 사건은 가스를 투입하여 범인들의 투항을 받았고, 1993 파리 보육원에서의 인질범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공사례이다.

그러므로 인질협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실전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최소한 현장지휘관은 자신이 투입할 수 있는 경력의 범위, 투입된 경력의 능력 등을 숙지하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질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수사보안연수소의 교육과정에 인질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교과를 신설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최소한 지방경찰청 단위별로 인질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질협상 전문요원을 선발·교육해야 한다. 특히 지방경찰청에서 멀리 떨어진 원격지 경찰서는 권역별로 인질협상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발된 협상요원은 인질협상의 기본지식을 비롯, 대화기법·심리변화기법·사례분석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협상기법과 언론대응기법 등 인질협상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실제 상황과 같은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감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사보안연수소에서 1주일 교육으로 인질협상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작전부대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협상요원로서의 양성에는 지극히 부족하다 할 것이다.

특정대학에 심리학 또는 인질협상기법 특별과목을 위탁하여 우수한 요원양성이 필요할 것이며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FBI·CIA 등 대테러(인질협상)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2. 인질사건 담당기관간의 자료 공유 및 훈련 철저

그동안 대테러 연구 등 각종 연구논문 및 인질관련 교육자료 등이 일선 경찰서의 경비과와 외사계 소관업무로 여겨져 외근근무자가 아닌 내근근무자의 캐비닛에 쌓여있는<sup>29)</sup> 현실을 개선해서 수사 부서에도 보급되는 등 인질관련 자료의 실질적인 공유가 중요하다.

경찰특공대의 훈련 역시 주로 대테러 등에 치중되고 있는 실태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범인에 의한 우발적인 인질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조정

29) 심지어 일부 문건은 비밀로 분류되어 외근 직원들이 접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하고, 형사나 112순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S.O.P(표준운영절차)를 체계화하여 현장 근무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인질사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대전 신탄진동 인질의 사망 이후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고 이후 인질사건 대처요령, 인질협상 기법 등이 수사부서에 교육되었으나 그 이전에 수사부서에 서의 인질사건 대처에 대한 방안이 교육되거나 지시된 바가 전무하다.<sup>30)</sup>

### 3. 인질사건 관련기관 및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인질사건의 현장에는 전술부대를 운용하는 경비분야와 일선 외사·수사분야의 원활한 공조는 필수적이다. 인질협상요원, 수사요원, 전술부대 지휘관, 심리학자, 통역요원, 소방·응급의료팀 기타 전기·가스·통신회사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인질협상 모임체를 구성하여 상호 의견교환, 사례분석 등을 통해 그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등 인질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찰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납치사건의 경우 주야간 범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시스템과 최소한 이동통신회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경찰의 인질사건에 대응한 활동이 대부분 언론매체를 통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인질사건은 언론기관에게는 특종인 사건이다. 인질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의 개입은 필연적인 것이며, 노 코멘트로 일관하거나 언론을 이용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언론 관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에 의해 작전이 미리 노출된다든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북가좌동 인질사건에서 보듯이 언론에 너무 일찍 노출되어 작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된 경우도 있고 특공대원들은 작전개시 시점에서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

30) 송00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책임 이외의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은 사유가 되기도 하였다.

대고 플래쉬를 터뜨리는 바람에 범인에게 작전이 노출되어 실패할 뻔 했다는 경험담을 토로하곤 한다<sup>31)</sup>.

가능하면 언론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개의 경우는 현장지휘관이 언론의 취재목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담당관이든 현장지휘관이든 대 언론관계는 공개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이해를 구하고 협조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중요 인질상황 발생시 지휘관의 체계적인 수사지휘

대전 그린회관 사건에서 보듯이 지휘관이 현장에서 체계적인 수사지휘를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었다. 가능한 경력을 동원하고 작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의 지휘관이 현장에 임하여 수사지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서장 또는 수사(형사)과장이 현장지휘관으로 임장해야 할 것이다. 일선 외근 형사들의 경우 인질의 안전보다는 범인검거 의욕이 앞설 수 있고 필요한 경력의 지원요청에 권한의 한계를 갖고 있다.

## V. 결 론

지금까지 인질사건에 대하여 인질협상 기법과 우리 경찰 현실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어찌보면 인질과 인질범과의 관계 인질범의 성향, 사건현장의 생소함, 언론·피해자 가족의 간섭과 관여 등 고려해야할 수많은 사안에 비추어 모든 사례에서 공통될 수 있는 매뉴얼이란 실제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사회의 변화 여건에 따라 인질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져가고 이를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경찰내부에서도 단순히 대테러 전술대책 차원의 경찰특공대 운영보다는 보다 유기적인 합동훈련과 정보교류를 통해 발생가능한 인질사건에 대비

31) 2000.8 경찰특공대 김00경사의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경찰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인질사건에 대처하는 현장지휘관은 고독하다. 실제 충주혜성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던 당시 서장은 “3초의 공격타이밍을 얻기 위해 6시간을 참고 또 참았다.”고 말하고 있다.

인질사건에 대처하는 현장지휘관은 첫째 인질의 안전, 둘째 경찰과 관계인들의 안전, 셋째 인질범의 안전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며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장비의 개발과 보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이 인질사건을 접하는 관계담당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 맞이하지 않는다.

## < 참고 문헌 >

### <국내문헌>

- 구광모, 인질협상에 있어서 인질범과 인질과의 관계, 1988  
경찰청, 대테러 인질협상, 2000. 11  
경찰청, 대테러연구, 2002.  
경찰청, 중요수사사례, 2002.  
경찰청, 2002 경찰백서  
경찰공제회, 경찰외사론, 2003  
김두현, 경호학개론, 2003.  
김상구, 인질사건 수사지휘, 수사보안연주소, 2003.  
김종하, 김봉운, 인천 연수동 인질강도 사건 수사사례 연구, 2003  
김현진, 경찰의 대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2. 4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문각, 2002.  
이철구, 인질사건의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1. 12  
이하영, 인질의 정신병리적 고찰, 1989

### <국외문헌>

- Davis A, Soskis, *Management Quaterly*, U.S Department of justice, FBI, 1996  
Summer, Colin, *The Sociology of Deviance; An obituary*,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 1994.  
Thomas Strenz, *A terrorist Psychological profile : Past and Present*, FBI Law Enforcement Bulletin, U.S. Department of Justice, FBI, 1987

## ABSTRACT

### A Study for Hostage Crisis and It's Effective Resolution

Kim, Sang Koo

This is a study on hostage crisis and effective resolution of the crisis.

First, we surveyed the theoretical guidance for our study: definition, patterns, of hostage crisis; psychology of hostage-takers.

And we explores a great variety of hostage crisis cases to develop principles and methods for negotiation and subjugation.

We suggest, throughout this study, some action program to be developed, as follow:

First, we need to broaden and deepen the understanding on the issue of hostage-crisis by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y on the issue, while raising hostage negotiators

Second, information sharing system among hostage management related offices, and complete training for SWAT team are required.

Third, when a hostage-crisis is raised, police enforcement must corporate with mass-media in a way of close manner.

Fourth, in a critical hostage crisis, the commander should appear on site for effective command.

Lastly, the top-priority for the commander who is in charge of the crisis should be put on the security of hostage and hostage-taker, as well.